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특 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상 II

한 동구(평택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전승의 다문화적 해석 10

본 연구는 신약시대의 기독교공동체(갈 3: 7-14; 롬 4: 13-16)에서 보여준 다문화적 세계관의 기원을 찾는 논문으로,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를 전하는 '아브라함 전승을 신약성서로부터 중간사의 문헌 그리고 구약의 문헌으로 시대적으로 역방향으로 추적해 올라간다. 본 연구는 좁은 민족주의 구별/차별을 넘어 세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전승의 다문화적 해석

한 동구 | 평택대

1. 문제의 제기

지난 19-20세기는 민족주의로 점철된 시대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온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좁혀왔으며, 이전보다 활발하게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즘이라는 통일된 세계를 열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과 영어와 상품 시장의 단일화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신 헬레니즘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여러 민족이 한 국가, 동일한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 세계를 열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온 세계에는 신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 '세계화'의 거센 물결이 일고, '세계화'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세대간의 양극화, 그리고 자국민과 다문화 가정의 양극화 문제 등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계는 다문화적 사회로 바뀌었으나, 사람들의 정

신은 여전히 민족주의 시대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의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신약 시대의 기독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 이 때 그들은 다문화 세계를 접해야 했고, 이를 잘 극복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신약 시대의 기독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씨)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⁷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⁸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¹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갈 3: 7-14).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승될 수 없다고 말한다.

¹³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 ¹⁶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 13-16)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열어 놓음으로써, 기독교에게 또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민족-다문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¹⁾ 이러한 기독교의 다문화적 세계관은 신약 성서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 구약 성서 내에서 그 싹을 틔

우고 있으며, 그리고 중간사의 문헌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브라함 전승에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적 세계관을 펼친 전승들의 기원과 전승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2. 중간사 문헌의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다문화적 세계관

중간사의 문헌에서도 아브라함을 여러 곳에서 언급한다. 그 중에서 다문화적 세계관과 연결될 수 있는 전승은 집회서 44장 19-21절과 마카비상 12장 19-23절에서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의 백성들을 포괄하는 개방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집회서의 아브라함 후손

집회서는 잠언과 같이, 여러 가지 교훈을 모아놓은 지혜 문학이다. 벤 시락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묶어 놓은 책이다.²⁾ 집회서는 대제사장 시몬이 죽은 뒤 얼마 후(기원전 220-190년),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기 이전, 대략 기원전 180년경에 편찬되었다. 벤 시락은 안티오쿠스 4세의 강압적 희랍화 정책의 추진이나 마카비 혁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서를 저술한 것 같다.³⁾

벤 시락은 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유대교의 중요 문서들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학자요 지혜 교사였다. 그는 유대 전통에 충실하고자 했던 전통주의자인 동시에, 외부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은 개방주의자였다. 그는 당시 상류 사회에 속했으며, 집회서에는 상류 사회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⁴⁾

집회서에는 다양한 주제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으로, 44장에서 50장 22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왕, 지혜로운 조언자, 예언자, 음악가, 대제사장 등이 등장한다. 집회서

1) 보다 상세한 주석은 유 은걸,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제30집(2009년 12월 31일), 103-124쪽을 참조하라. 그 밖에도 「구약논단」 제30집에서 “아브라함 상”의 특집호를 다루면서 이 영미, “성서 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김 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오 원근, “창세기와 회년서의 아브라함 상 비교” 배 정훈, “회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김 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히 11장 8-10 절의 해석에 대한 메타 주석” 등을 다루었다.

2)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108쪽.

3)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08쪽.

4)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09쪽.

44장 19-21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칭송이 등장한다:

¹⁹아브라함은 허다한 민족의 위대한 시조이며 아무도 그 영광을 따를 사람은 없다. ²⁰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 분과 계약을 맺었다. 자기 살에 그 계약의 표시를 새기었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충실하였다. ²¹그러므로 맹세로써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 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에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공동번역)

벤 시락은 희랍 문화가 거세게 밀려오던 시기에 집회서를 편찬하였다. 그는 희랍 문화나 다른 외래 문화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전통적 유대교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한 수용했다.⁵⁾ 집회서는 희랍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과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조화와 융합을 주장하였다.

집회서 44장 19-21절은 창 12-25장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당대의 상황에 부합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주로 창 17장과 15장의 내용에 근거한다.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의 증거로 할례도 준수하였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과 가치가 계승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과 가치를 준수하여,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과 가치가 계승은 전능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전능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방 민족과 외래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온 세계가 가족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상 속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점은 창세기의 전승과 가르침을 수용하고 또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24-125쪽.

2) 마카비상의 아브라함 후손

마카비상은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34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역사를 주로 기술하고 있다. 마카비상은 마따디아와 그의 세 아들 유다, 요나단과 시몬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⁶⁾ 즉,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에서 시작하여 유다의 형제 시몬의 죽음까지 약 40년간의 유대 민족 독립 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마카비상은 히브리어로 기술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희랍어 번역본만 남아있다.⁷⁾

마카비상의 역사 서술 방법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같이 유대 민족 독립 운동에 참여한 마카비 가문의 영웅들을 위인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인물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신명기 역사서처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⁸⁾

마카비상의 저작 연대는 요한 히르카누스(John Hyrcanus 기원전 134-104년)의 통치 기간 혹은 그 직후로 추정된다.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에서 시작된 유대 억압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마카비 혁명에 직접 참여하고, 전쟁을 목격한 인물이었다. 저자는 민족 독립 운동의 주체를 마따디아와 그의 세 아들로 보았다. 유대 민족이 외세와 반역자들의 박해를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은 바로 이들이 활약한 결과라고 여겼다. 마카비상은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탄생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즉,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밝혀준다.⁹⁾

마카비 혁명은 초기에는 외세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으로 차 있어, 외세와의 일체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듭되는 전투의 과정에서 적을 교란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외세와도 제휴하기도 하였다. 요나단은 데메드리오 왕(1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알렉산더 에피파네스(Alexander Epiphanes 기원전 150-145년)와 동맹을 맺고, 그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외세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동맹을 맺어 실리를 취하였다. 요나단은 로마 및 스파르타와도 동맹을 맺었다(마

6) 마따디아의 아들은 모두 5명이며,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잘과 요나단이다. 순서에 유의하라.

7)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60-161쪽.

8)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60쪽.

9) 이러한 변증은 마카비 혁명의 정통성을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쿨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다.

카비상 11: 60 - 12: 38).

마카비상 12장 19-23절은 기원전 약 300년경에 스파르타의 왕 아레오스가 유다의 대제사장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 즉 일종의 공식 외교 문서이다.¹⁰⁾

¹⁹다음은 아레오스가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²⁰스파르타의 왕 나 아레오스가 유다의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²¹어떤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서로 형제이고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²²이러한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터이니 귀국이 얼마나 번영했는지에 관하여 나에게 편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²³나는 여러분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을 귀하에게 전 하라고 나의 사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서로 형제이며,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다가 형제의 나라이며, 또한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은 다소 의문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희랍의 유대 지배 초기에는 적대감도 없었으며, 유다 사람들을 헬레니즘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편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창세기의 전승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시 47편에 나타난 다문화적 세계관

시 47편은 찬양시 가운데 ‘야훼-제왕 시편’에 속한다. 찬양시는 원래 야훼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구속사적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야훼-제왕 시편’은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한다(시 47: 93:

10) 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 161쪽 각주 3번.

96-99편).¹¹⁾

시 47편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보좌에 올라앉으심을 선포한다(시 47: 5, 8). 야훼-제왕 시편들의 중요한 특징은 야훼의 통치 영역의 확장에 있다.¹²⁾ 시 47편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찬양한다. 야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온 땅”(כָּל־הָאָרֶץ 콜-하아레츠/시 47: 2, 7), 민족들(עַמִּים 아밌)과 나라들(אֲמִי 우밌/시 47: 3), 나라들(גּוֹי 고임/시 47: 8)로, 또 찬양의 주체로 “모든 민족들!”(כָּל־הָעַמִּי 콜-하아밌)을 지칭하며(시 47: 1), 또한 민족들(עַמִּי 아밌)과 나라들(אֲמִי 우밌)에게 명령하여 그의 백성에게 복종하게 했다.¹³⁾

특이한 점은 못 민족의 지도자들(혹은 고관들, נְדִיבֵי עַמִּים 느디베 아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시 47: 9).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세계가 하나됨을 나타낸 것이다. 창세기의 족장사(특히 제사장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상이다(창 17: 4-6). 야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범위가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의 근원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에 두고 있다.¹⁴⁾

11) 또 단순한 야훼 하나님께 왕의 칭호를 붙인 시들도 있다. 시 10: 16; 24: 8, 10; 29: 10; 47: 2ff.; 84: 3(참조 9절); 93: 1; 95: 3, 7; 96: 10; 97: 1; 98: 6; 99: 1; 102: 12, 15; 103: 19; 110: 2f.; 146: 10.

12)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인간세계를 넘어 자연계도 지배하고 계신다(시 93: 3-4; 96: 11-12; 97: 1-4; 98: 7-8; 99: 7; 참조 시 29편). 시편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예루살렘 성소 뿐 아니라(사 6), 천상에 두기도 한다(시 103: 19; 참조 시 29: 10 “야훼께서 바다 위에 좌정하신다”). 참조 크라우스(H.-J. Kraus), 「신편의 신학」(신 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54쪽. 우주적 표현은 시편의 신화적 기원을 말하기보다는 야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함께 유일신임을 찬양하는 표현이다. 참조 포오러, 「구약성서 개론 하」(방 석중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6), 86-77쪽.

야훼 하나님의 통치는 신들의 세계에까지 미친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시 96: 4; 97: 4; 참조 95: 3). 나아가 이들은 우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나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시 96: 5). 이러한 점은 이미 이사야의 신관을 전제한다(사 44: 6-8).

13) 시 47: 7, 8-9; 96: 1, 96: 3; 97: 9; 98: 3-4; 99: 1.

14) 민족들이 나오리라(אֲבוֹתֵינוּ 리고임): 창 17: 16; 참조 창 28: 3; 35: 11; 48: 4;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אֲבוֹתֵינוּ אֲבוֹתֵינוּ אֲבוֹתֵינוּ 압-하몬 고임): 창 17: 5; 그리고 민족들의 왕들(עַמִּים מְלֻכִּים 말케 아밌): 창 17: 6, 16, 20; 참조 창 35: 11 등이다.

제 47 편

- ¹모든 민족들아(כָּל־הַגּוֹיִם)! 너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²영원하신 야훼는 두려우신 분이시며,
온 땅(כָּל־הָאָרֶץ)에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³야훼께서는 민족들(גּוֹיִם)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나라들(אֲמִי)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⁴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곧 그가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를 선택하셨다. (셀라)
⁵하나님께서 즐거운 합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⁶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⁷하나님은 온 땅(כָּל־הָאָרֶץ)의 왕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⁸하나님이 나라들(אֲמִי)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⁹민족들의 고관들(כָּל־עַמּוּדֵי הָאָרֶץ)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패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4. 족장사의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다문화적 세계관

족장사의 아브라함 본문으로부터 다문화적 세계관을 펼친 전승을 추적하고자 한다. 족장사에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야훼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 삶의 자리'에서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¹⁵⁾

15) 필자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성서 읽기'를 다른 연구에서 이미 시도하였다. 한 동구,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제27집(2008년 3월 31일), 92-112 쪽과 Han, Dong-Gu, "The Crisis of a Patriarch's Wife (Genesis 20: 1-18):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아시아성서학회 2008년 7월 16일 발표논문). 한 동구, "삶의 터전의 분쟁과 해결(창 26장 12-33<34-35>절) - 다문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9집(2008년 10월 15일), 5-26쪽.

1) 온 세계의 한 가족 공동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 세계를 위한 축복의 중재자가 되게 했다(창 12: 3). 축복의 중재자의 궁극적 이상은 온 세계를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흠어진의 저주를 극복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노아의 세 아들은 죄를 범하여 흠어지는 운명의 길을 걷는다. 가나안/함은 저주의 길로 셈과 야벳은 축복의 길로 각기 분리되어 갔다. 이는 저주받은 인간의 분리의 근거와 정당성을 보여준다.¹⁶⁾ 이는 야훼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범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이다. 창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에게(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이 생겨나, 온 세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종의 문자로 표현한 세계의 지도이다. 야벳은 북방 민족들/지역들, 함은 남방 민족들/지역들 그리고 셈은 팔레스타인 및 동방 민족들/지역들을 나타낸다. 비록 이 세계 지도가 셈을 중심으로 그려졌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직접 보여준다.¹⁷⁾

이처럼 세계를 한 가족으로 보는 사상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전승에도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사망 보도를 전후로 하여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은 것 외에, 크투라(아랍계 부인)에게서 여섯 아들을 얻었으며, 이들의 계보를 소개한다(창 25: 1-6). 이들은 대체로 아랍계 민족이나 지명을 나타낸다.¹⁸⁾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의 계보도 소개한다(창 25: 12-18). 이들의 계보는 대체로 아랍계 민족이나 지명을 나타낸다.¹⁹⁾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16) 레빈, 「편집자 야훼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179쪽. 원제는 Ch. Levin, *Der Jahw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17) 브루거만,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52쪽. 원제는 W. Brueggema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8) C. Westermann, *Genesis* (BK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1983), 481-485쪽.

19) C. Westermann, *Genesis*, 485-487쪽.

들은 더 이상 야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로 분리되지 않는다. 모두가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며, 모두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창 36장 에돔의 족보에서도 보여준다.

2) 증대의 축복:

강대국을 열망하는 증대의 축복과 세계 가족을 지향하는 증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창 15장에서는 자손의 증대에 대한 약속 (창 15: 1-6)과 영토의 증대에 대한 약속 (창 15: 18b-21)을 전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서 자손 증대의 약속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²⁰⁾

이러한 증대의 약속의 역사적 배경은 약소국의 운명에서 벗어나, 강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배후에는 여전히 정복과 지배의 철학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대의 약속 가운데에는 다른 형태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창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אֲבִי הָרַבִּימוֹן**) 브하 이타 르아브 하몬 고임)가 되리라고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였다. 개명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수한 민족들의 아버지”(**אֲבִי הָרַבִּימוֹן**) 아브-하몬 고임)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명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심히 번성하게 되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들이 되며, 그 결과 여러 왕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증대의 약속은 사라의 개명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사래)를 ‘사라’라고 부르게 했다. ‘사라이’(שרי)는 동사 שרה(사라/투쟁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사라’(שרה)는 동사 רר(사라르/지배하다)에서 파생하였다.²¹⁾ 이러한 개명에서 암시하듯, 하나

20) “헤아릴 수 없이 많은”(**רַבִּימֵר לֹא יִסְפֵּר**) 로 이사페르 메롭) - 창 13: 16; 15: 5; 16: 10; 32: 13; “땅의 먼지와 같이”(**כְּעִפְרֵי הָאָרֶץ**) 카아파를 하아레츠) - 창 13: 16; 28: 14; “바다의 모래와 같이”(**כְּחֹמֶת הַיָּם**) 카호를 아샤르 알-쉬파트 하얌) - 창 22: 17; 32: 13(12); 사 10: 22; 48: 19; “하늘의 별과 같이”(**כְּכּוֹכְבֵי הַשָּׁמַיִם**) 코코크베 하사마임) - 창 15: 5; 22: 17; 26: 4; 출 32: 13; 신 1: 10; 10: 22; 28: 62; 느 9: 23; “생육하고 번성하다”(**רַבָּה כַּרְרָה**) 라바 파라) - 창 1장; 17: 20; 28: 3; 35: 11; 48: 4; (47: 27);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וְיִרְבּוּ לְךָ גּוֹיִם**) 러고이 가들) - 창 12: 2; 17: 20; 18: 18; 21: 13; 18: 46; 3: 출 32: 10; 민 14: 12.

21) W. Gesenius, *Han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Göttingen/Heidelber:

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여,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그 결과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 생겨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창 17장에서 보여준 증대의 축복의 약속은 다민족·다문화적 상황에서의 축복이다. 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자손이 퍼져 나와 세계의 여러 민족이 되었다. 이는 약소국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대의 약속과는 달리, 다민족·다문화적 현실을 하나님 축복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한 아버지에게서 퍼져 나온 한 가족 공동체로 보았다. 창 17장에서의 증대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면으로 선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창세기 및 구약 성서의 여러 민족들의 계보론은 바로 이러한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표현들이다.

3) 축복의 중재자

창 12장 1-3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야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가도록 명령했다. 이동 명령과 함께 일곱 가지 축복을 약속한다. 관심의 대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중재자가 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일회적인 축복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계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중재자가 되리라는 축복은 족장사의 여러 곳(창 12: 3b; 창 18: 18; 창 22: 18; 창 26: 4; 창 28: 14)과 시 72편 18절과 렘 4장 2절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구문은 '가치 표준'이 없는 구문(창 26: 4과 창 28: 14)에서부터 점차 가치 표준은 없을지라도 이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구문(22)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완전한 '가치 표준'과 결합된 구문(창 12: 3a; 27: 29b; 민 24: 9)으로 발전되었다.

전형적인 가치 표준은 상호 공존을 추구할 경우 하나님도 축복할 것이며,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갈 경우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내용이다: "너를

Springer Verlag, 1962¹⁷⁾, 793, 795쪽.

22) 아브라함의 순종적 실천(창 22: 18), 축복의 근거들(창 18: 18), 사회적 정의의 실천(렘 4: 2; 시 72: 1-16).

친절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할 것이며, 너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할 것이다”(창 12: 3a) 여기에는 믿는 자들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가 규정되며, 이방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민족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축복의 중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온 세계에 축복을 베푸는 이스라엘 중심주의적 성격을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전승의 발전 과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발전의 과정을 나타낸다. 야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강국이 되는’ 희망으로부터 ‘세계에 바른 삶과 가치를 전하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희망을 거쳐 ‘세계에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중재자가 되는’ 희망으로 발전하였다.

5. 창 21장 8-21절(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에 나타난 다문화적 세계관
아브라함 전승 가운데 신학적 해석의 성향이 강한 네 본문이 있다.²³⁾ 이들 본문들은 족장사의 다른 본문들에 비해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강한 반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⁴⁾

그 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을 다룬 창 21장 8-21절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질문과 본문의 전승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질문²⁵⁾과 나그네 살이 하는 족장들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다.²⁶⁾

여기에서는 창 21장 8-21절(하갈과 이스마엘의 축출)에서의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족장사의 큰 즐거이인 ‘나그네 살이’의 모습은 이야기의 배경으로 물러나 있고, ‘다문화적 삶의 원리’ 찾기가 전면에서 선다.

23) 창 20장 1-18절(족장의 아내의 위협); 창 21장 8-21절(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 21장 22-34절(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계약); 22장 1-19절(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24) 창 20장 1-18절(족장의 아내의 위협)과 창 21장 22-34절(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계약)에서의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는 이미 다룬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다. Han, Dong-Gu, “The Crisis of a Patriarch’s Wife (Genesis 20:1-18):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한 동구, “삶의 터전의 분쟁과 해결(창 26장 12-33<34-35>절) - 다문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25) I. Fischer, *Die Erzeltern Israels* (BZAW 22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26)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 Genesis* (ATD 5), (Göttingen: Vandenhoecker Ruprecht, 1964) = 폰 라트,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1) 창 21장 8-21절의 문학적 특징

창 21장 8-21절에서는 두 차례 이상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²⁷⁾ 그럼에도 본문의 통일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개정이거나 부분적 삽입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레빈은 하갈의 추방과 이스마엘의 추방 이야기(창 21: 8-21)는 “어떤 시작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앞에 있던 본문인 창 21장 1-7(8)절과 창 16장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⁸⁾ 창 21장 8-21절은 본문을 구성적(kompositional)으로 편집하여 신학적 해석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일치(중복과 차이)가 나타났다.

2) 창 21장 8-21절의 분석

창 16장에서는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인하여 하갈이 축출되었다. 창 21장 8-21절에서는 이삭이 태어나므로(창 21: 1-7) 아브라함의 아들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갈등(누가 상속자인가? 참조 창 21: 10, 12)으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축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양자는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많은

27) 창 21장 8-21절에는 이스마엘을 아기(בֶּרֶךְ: 14, 15, 16), 소년(נָעָם 12, 17-20) 그리고 아들(בֶּן 9, 10, 11, 13)로 불려졌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아기와 소년으로 혼용해 부르는 것이다. 12절에서 소년으로 불려던 이스마엘이 14-16절에서는 아기로 불려졌다. 이러한 혼용의 문제와 함께 창 21장 8-21절의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또 이러한 혼용으로 인해 아기되는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레닌그라드 사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빵과 물을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창 21: 14ac)을 “또 아이와 함께 그는 그녀를 떠나 보냈다”로 읽고 있다. 그러나 BHS와 몇몇 주석에서는 “בְּרֵךְ וְיָסֵף” (버에트 하엘레드/또 아이와 함께)를 동사 창 21장 14b의 וַיִּשֶׂם (삼<심/놓다) 앞에 옮겨 아브라함에게 빵과 물을 하갈에게 주고, “또 아이를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는 그녀를 떠나 보냈다”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창 17장 25절에 따르면(제사장 문서와 결합한 후에), 이스마엘은 이미 16-17세 정도의 소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 본문은 문맥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되었을 수 있다(C. Westermann, 417쪽). 이러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문의 통일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창 21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들은 소리는 소년(=이스마엘)의 울음소리이다. 그러나 창 21장 16절에서 온 사람은 하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조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BHS에서는 셋투아 진트에서의 읽기와 같이 창 21장 16bβ절을 וַיִּשְׂרָא אֶת נְעָמָה וְאֶת יִשְׁמָעֵאל וְאֶת אֲבִירָם וְאֶת אֲבִירָם (그는 그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로 읽기를 제안했다. 대부분의 주석들도 BHS의 제안을 따라 읽고 있다. 공동번역에서도 하갈 대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로 고쳐 읽고 있다.

28) 레빈, 편집자 아웨이자, 277쪽.

차이가 있다.

창 16장에서는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에게 아들의 약속과 함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신다. 창 21장 8-21절에서는 갈등의 초기에 “여종의 아들도 나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라는 축복을 약속한다(창 21: 13). 이러한 구조의 차이는 창 21장이 더 이상 “나그네 살이의 운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1) 서론적 보도: 시간의 변화(창 21: 8)

이삭의 출생과 함께 그의 성장을 보도한다. 이삭은 이제 젖을 땔 만큼 성장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젖을 떼는 것은 아기가 매우 성장한 후에 일어났다. 출생 후 약 3년이 지난 후에 젖을 땀다(참조 삼상 1: 23f.; 마카하 7: 27).²⁹⁾

이삭이 생의 첫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도함으로써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있었던 많은 사건들로부터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으며, 새로운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린다.

(2) 사라의 추방의 원인(창 21: 9-10)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창 16장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가볍게 여겨졌다. 상황의 변화는 하갈로 하여금 당당하게, 역으로 사라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비록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사라는 부당함을 느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 주었으나, 그녀가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자, 그녀의 눈에 내가 가볍게 여겨졌습니다”라고 항의하였다. 그녀의 당당함과 사라가 느끼는 초라함(그래서 부당함)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도망하였다.

창 21장 8-21절에서는 사라의 질투에서 갈등이 야기된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삭과 이스마엘)은 잘 자라고 있었다. 이들은 사이좋게 잘 놀고 있다(창 21: 9).³⁰⁾ 이들 사이의 평화는 사라의 요구(창 21: 10)로

29) H. Gunkel, *Genesis*(HA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2⁵), 228쪽.
30) 창 21장 9절에서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셉투아진트에서는 **πρὸς**(머치헤크/놀다) 다음에 **μετὰ** **ἰσ**
αακ **τοῦ** **υἱοῦ** **αὐτίς**(=**πρὸς** **πρὸς** **τῆς** 그녀의 아들 이삭과 함께)라는 말을 추가하였다. 이를

깨어지게 되었다. 먼저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스마엘)이 그녀의 아들(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קָרָא אֶת־בָּנָיָהּ בַּת־עֲרָבָה 사라/사라가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하갈이 이방인, 즉 애굽 여인(תַּיִצְרֵיטִי 하미츠티트)이라는 점을 향한다. 더욱이 이전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보내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사건을 되새긴다. 그때 사라는 하갈과 갈등에 빠져들었으며,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음을 상기한다.³¹⁾

그리고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이전의 갈등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갈등을 상상하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 '혹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이삭의 상속분을 가로채지 않을까 염려한다.'(창 21: 10b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요구를 하게 된다. 몸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다. 레빈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שָׁרַף 가리쉬/내쫓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אִי אִרְשִׁי/상속하다)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상속과 추방은 영토 점령 신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스라엘의 영토의 소유(אִי אִרְשִׁי)는 비-이스라엘의 추방(שָׁרַף 가리쉬)과 관련되었다.³²⁾ 이방 민족의 축출과 이스라엘의 땅 소유와의 상관 관계는 신명기에서 다양한 용어로 서술되었다.³³⁾ 이에 영향을 입은 후기의 문서들에서도 이방 민족의 축출과 이스라엘의 땅 소유가 동일시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사라의 주장은 신명기 신학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마치 사라의 입을 통하여 신명기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물론 창세기 21장 9-10절과 신명기 신학과의 차이점도 있다. 신명기 신학에서는 אִי(아리쉬/상속하다)에 의해 땅의 소유를 주로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손에 의한 상속(정체성 보존)을 말하고 있다.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적 상을 부각시킨다.

31) 폰 라트는 갈등의 원인을 "사라의 관점에서 본 신분의 불평등"에서 찾으려 했다.

32) 레빈, 편집자 아웨이자, 278쪽.

33) שָׁרַף(가리쉬/몰아내다, 축출하다) - 출 23: 28-31; 33: 2; 출 34: 11; 수 24: 12; 사 2: 3; 6: 9; 시 78: 55; 80: 9; חָדַף(하다프/몰아내다) - 신 6: 19; 9: 4; 수 23: 5; שָׁרַף Qal - 민 21: 32; 신 2: 12, 21, 22; 9: 1, 4-5; 11: 23, אִי Hi. - 출 34: 24; 민 21: 32; 32: 21, 39; 32: 52, 55; 신 4: 38; 7: 17; 9: 3-5; 11: 23; 수 3: 10; 13: 6, 12, 13; 14: 12; 15: 14, 63; לָקַח(나살/제거하다, 몰아내다) - 신 7: 1, 22.

(3)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명령(창 21: 11-13)

창 16장에서는 사라의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극히 수동적이다(창 16: 2b). 사래의 능동적 태도와 아브라함의 수동적 태도는 창 16장 3절(P 문서)에서 더욱 강조된다.

창 21장 8-2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의해 내보내졌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며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이방 민족의 축출을 주장하는 신명기의 신학이 매우 과격하다고 느껴지는 것과 같다.

한편 창 15장 2-4절에서는 양자에 의한 혈통의 계승을 거부한다. 아브라함은 자식 없이 살아가며, 그가 죽을 경우 그의 상속자는 다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뿐인 처지에서 “당신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으로 그가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불평이 섞인 질문의 형식으로 호소한다.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손에 의한 상속을 말씀하셨다. 창 21장 12b절에서도 혈통에 의한 계승 원리의 주장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네 후손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양자(창 15: 2)나 첩(창 16장)에 의하여 혈통을 계승하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한다(참조 창 15: 3; 21: 12b). 정부인에 의한 자녀만이 진정 혈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네 후손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창 21: 12b)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혈통에 의한 계승’도 넘어설 것을 요구하신다. 창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인간적 연민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명령한다. 창 21장에서는 이러한 혈통의 순수성의 강조하는 전승의 입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하여 이룩되는 새로운 세계를 주장한다.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여기에서는 이스마엘)도 혈통으로 간주하여,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혈통에 의한 계승의 문제는 분명히 시야가 민족의 생존이라는 (좁은) 문제에 맞추어져 있으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과 민족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내다 본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의 미래로 상징되는 민족의 생존의 문제에 반하여, 창 21장에서는 국제 관계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 하나님에 의해 제시되는 새로운 세계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순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양보는 약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일어났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악함(사라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선(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으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독자에게 바라보게 한다.

(4)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난(창 21: 14-16)과 하나님의 개입(창 21: 17-18)

창 16장에서는 하갈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에 대하여 아무런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창 21장에서는 보다 상세히 보도한다.³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창 16장 7-8절에서는 야훼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그녀의 정체성을 묻는다. 그녀는 지금 나그네 살이로 인한 고난의 인생이다. 이에 대하여 야훼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해석한다(야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창 16: 11bβ).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명명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종결된다(창 16: 13).

창 21장 17절에서는 창 16장 11절을 (내용적으로) 인용한다. 하나님

34)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소유물과 함께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다: 빵과 물 한 가죽부대(창 21: 14aβ). 계속하여 나그네 살이로 내몰린 하갈과 그의 아들의 고난이 서술되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브엘세바 광야에까지 갔다고 보도한다. 아마도 그녀는 길을 잃었으며, 이 광야에서 물은 다 떨어져 죽음의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본인이 겪는 고통보다는 자식의 고통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

본문은 어머니의 고통을 두 번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먼저, 물이 떨어지자 그녀는 맞은 편에 앉아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보도한다(창 21: 16b). 그리고 또 다른 보도는 그녀는 먼저 아이를 덩불나무 아래에 남겨두고, 화살을 쏘아 날아가는 거리만큼 계속 가서 주저앉아 탄식하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하고 말하였다(창 21: 16a). 창 21: 16a는 창 21: 16b의 보도를 보다 상세히 보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는 먼저 아이를 덩불 속에 던져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고자 했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결코 보고싶지 않아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 멀리 떨어졌다. 이 처절한 상황에서 그녀는 마냥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은 고난 중에 외치는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리고 소년의 울음소리³⁵⁾ 또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강조되어 있다. 즉 두 번 반복되었다. 천사는 하갈을 하늘에서 불러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년의 소리를 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베스트만은 하나님께서 소년의 음성을 들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절정, 즉 목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야비스트의 신학적인 음성으로 결코 창 21장의 목표점이 아니다.

궁켈은 하갈이 극도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장소를 만났으며, 그 곳은 모세의 덤불(출 3: 2)이나 엘리야의 덤불(왕상 19: 4)과 같이, 한 덤불나무 아래로, 하나님께서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 즉 성소라 하였다.³⁶⁾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전형적인 야비스트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며, 그들이 내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이 곧 성전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 하갈이 내는 탄식 소리이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는 탄식 소리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탄식 소리는 물론 이방인들이 내는 탄식 소리도 모두 들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편드시는 하나님을 넘어, 고난받는 자의 편에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편성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또 굳게 붙잡으라고 명령한다. “굳게 붙잡다”(פּרַח 하짜크 Hi.)는 창 19장 6절에서 야훼께서 자비를 더하심으로, 피난 가기를 지체하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사람들이 잡아 인도할 때 사용한 표현이며, 제 2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굳게 붙잡을 때 사용한 표현이다(사 41: 9, 13).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 ..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35) 하갈이 소리 높여 울었으나(창 21: 16), 여기에서는 소년의 소리를 듣는다(창 21: 17).

36) H. Gunkel, *Genesis*, 230-231쪽.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한다(참조 창 사 42: 6). 그리고 사 45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이방인 통치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굳게 붙잡다”(פּוֹחַץ חִי.)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 사용되었으며, 또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방인 통치자에게까지도 큰 사명을 선포하는 곳에 사용하였다. 이제 하갈은 그 아기/소년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위대한 일을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³⁷⁾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 계획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역설을 요구한다. 목이 타는 심지어 그의 친어머니조차 포기해 버린 아기가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참조 사 49: 15)라고 약속한다.³⁸⁾ 하나님은 하갈에게 명령하여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큰 민족(גִּבּוֹרִים יִשְׂרָאֵל)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내려 주기 위해 그를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창 21장 18b절에서 이야기의 목표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한 이방인에게 약속을 내려주어 이방 민족의 선조가 되게 했다. “위대한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은 창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반복한다. 모든 세계의 민족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유래되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셨다.

하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기적으로 샘물을 발견하고, 그녀도 마시고 그녀의 아들도 마신다. 이로써 이야기의 긴장과 갈등은 해소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섭리를 향해 눈을 열게 한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순종만이 진정한 경외 사상으로 이해된다.

(5) 종결(창 21: 19-21)

37) 폰 라트, 「창세기」 257쪽.

38) 폰 라트, 「창세기」 257쪽.

이스마엘의 계속되는 운명의 서술로 이야기는 종결한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이후로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그 소년의 성장 과정에 내내 함께 하셨다. 그러나 그의 생활 양식은 족장들의 것과 달랐다. 그는 광야에 살았으며, 그는 활 쏘는 자(תַּשָּׁרֵט הַבֶּרֶךְ 로베 카샬트 20bβ)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그는 사냥과 약탈을 하며 살아갔다. 오늘날 그는 낙타를 치는 유목민, 즉 베두인의 조상이 되었다.

3) 다문화적 요소들

창 16장에서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양자(창 15: 2)나 첩(창 16 장)에 의해 혈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바라보았다면, 창 21장 8-21절에서는 사라의 질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상속자는 정부인에 의한 혈통의 계승자여야 한다'는 '좁은 민족주의'를 바라본다. '몸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신명기 신학으로 대변되는 좁은 민족주의적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창 21장 8-21절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하여 이룩되는 새로운 세계를 주장한다. 아브라함/이삭과 함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한다. 창 21장에서는 국제 관계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탄식 소리도 모두 들으신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편에서 세계를 하나의 가족으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민족들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사이의 좁은 민족주의적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셨다.

6. 요약과 결론

21세기는 '신 헬레니즘의 시대'로, 여러 민족이 한 국가, 동일한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 세계이다. 세계는 다문화적 사회로 바뀌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다문화적 가치관의 정립은 시대적인 과제이다.

신약 시대의 기독 공동체는 모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씨)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갈 3: 7-14; 롬 4: 13-16), 기독교 공동체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민족-다문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중간사 문헌에서도 다문화적 세계관 나타낸 아브라함 전승이 있다. 집회서 44장 19-21절에서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어 이방 민족과 외래 문화와의 조화를 주장한다. 마카비상 12장 19-23절에서는 “스파르타인과 유대인은 서로 형제이며,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말한다.

시 47편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못 민족의 지도자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이스라엘 민족의 범위가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 확대되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전승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그의 백성으로 여기는 전승은 다양한 ‘다문화적 세계관과 가치’를 전개하였다. 먼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퍼져 나온 가족 공동체로 여겼다. 이는 다양한 세계의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긴다. 이는 증대의 축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 하는 데 두고 있다.

다문화적 세계관을 전하는 중요한 아브라함 전승은 창 21장 8-21절에서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양자(창 15: 2)나 첩(창 16장)에 의해 혈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작은 믿음’과 ‘진정한 상속자는 정부인에 의한 혈통의 계승자여야 한다’는 ‘좁은 민족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하여 이룩되는 새로운 세계를 주장한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사이의 좁은 민족주의적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셨다.

7. 참고문헌

-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원제는 Ch. Levin, *Der Jahv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브루거만,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W. Brueggema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 and preaching*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유 은걸,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제30집(2009년 12월 31일), 103-124쪽.
- 친 사무엘, 「구약외경이해」(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 크라우스(H.-J. Kraus), 「신편의 신학」(신 운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 포오리, 「구약성개론 하」(방 석중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한 동구, “삶의 터전의 분쟁과 해결(창 26장 12-33<34-35>절) - 다문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신학논총」 제59집(2008년 10월 15일), 5-26쪽.
- _____,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제27집(2008년 3월 31일), 92-112쪽.
- Fischer, I., *Die Erzeltern Israels* (BZAW 22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 Gesenius, W., *Han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Göttingen/Heidelberg: Springer Verlag, 1962/17).
- Gunkel, H., *Genesis* (HA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2/5).
- Han, Dong-Gu, “The Crisis of a Patriarch’s Wife (Genesis 20:1-18):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atriarchal Narrative” (아시아성서학회 2008년 7월 16일 발표 논문).
- Rad, G. von, *Das erste Buch Mose. Genesis* (ATD 5), (Göttingen: Vandenhoecker Ruprecht, 1964) = 폰 라트,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 Westermann, C., *Genesis* (BK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1983).

검색어

아브라함의 후손
 신헬레니즘
 다문화
 다민족
 이스라엘과 이방인

투고일: 2009년 1월 11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25일

The Descendants of Abraham: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Abrahamic Traditions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e 21st century's world, which is sometimes referred as 'Neo-Hellenistic', is multicultural where a diversity of people shares a nation and a common ground of life. However, though the world has changed to multicultural society, the people yet seem to value nationalistic ideas considerably. I believe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is era to have a biblical value of multiculturalism, which is specifically advocated in the Abrahamic traditions and studied in the present article tracing them back from the New Testament, intertestamental writings and to the Old Testament.

The christian community in the New Testament opened the door for every believers to be a part of 'the descendants (= seed) of Abraham' (Gal 3: 7-14; Rom 4: 13-16). Christian missionary work has thus become worldwide, overcoming nationalism and reaching to the multicultural and multinational world.

The intertestamental writings also attest the multicultural advocating Abrahamic traditions. For instance, Sirach 44: 19-21 say that Abraham

could possibly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because he was blessed by God for his sincere observation of the Law; it in effect highlights the subsequent harmony between Israel and the foreign nations and their culture. In 1 Maccabees 12: 19-23 it is said that "the Spartans and the Jews are brothers and are of the family of Abraham".

Psalm 47, in the Old Testament, insinuates that the range of the Israelite people covers every nations in the world since YHWH God's sovereignty is expanded to accept the leaders of nations in the world as the people of Abraham's God. In the Abrahamic traditions of Genesis, YHWH God acknowledges Israel and the gentiles all together as his people, advocating 'multicultural world-view and values'. First of all, all the world is recognized as a family that derives from one man by the bless of God. This idea clearly indicates that the variety of the nations in the world are the descendants of Abraham. The bless of that 'expansion' is an innovative interpretation for the identity of Israel is seriously associated with witnessing the bless of God to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The very tradition advocating the multicultural world-view is found in Genesis 21: 8-21. Here the new world in which God carries out his will is envisaged, where the 'feeble belief' that attempted to run in the family by an adopted son (Gen 15: 2) or a concubine (Gen 16) is denounced, and the 'narrow-minded nationalism' that only admits a son of first wife as a true heir is got over. God broke down the wall of nationalistic separation between Israel and the gentile since he is a God over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Keywords

The Descendants of Abraham
Neo-Hellenism
Multi-culture
Multi-nations
Israel and the Gentile

